

**록히드,
위성통신망 추진**

미국 록히드마틴사는 40억달러 규모의 새로운 위성통신망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최근 '아스트로링크'라는 명칭의 지구위성통신망 구축과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 美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정식으로 허가를 요청했다.

항공우주 및 군수업체인 록히드사측은 FCC측의 허가를 얻는 대로 세계 각국의 관련업체들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투자유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일, 우주계획 진전
자동착륙장치 만들어
HOPE의 연착륙위한것**

일본이 2천년대초에 발사할 무인우주왕복선 HOPE개발계획이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소형 자동착륙 시험기가 완성되어 곧 시험에 착수하게 될것이라고 일본 항공우주공업회가 밝혔다.

ALFLEX라는 이름의 이 소형 착륙시험기는 항공우주연구소와 일본 우주개발사업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으로 후지중공업이 만들어 공개한 것이다.

일본의 우주왕복선 HOPE개발에 있어 중요한 세가지 기술 가운데 하나인 이 소형착륙시험기는 후지중공업이 약 12억원에 2기를 제작한 것이다.

다른 두가지 시험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제작한 궤도 재돌입시험기(OREX)로 이 장치는 작년 2월초에 H-II 로켓에 실려 발사된 뒤 시험에 성공했다. 또 다른 한가지는 가와사끼중공업이 제작 중인 극초음속 비행시험기(HYFLEX)이다.

이번에 만든 착륙시험기는 헬리콥터에 달아 이륙한뒤 일정고도에서 분리하면 자동으로 비행장에 연착륙하게 만든 것으로 일본내에는 적당한 공항이 없어 외국에서 시험하도록 지금 절충중인데 타협이 이루어지면 내년초부터 수개월에 걸쳐 20회정도의 시험이 행해질 예정이라고 한다.

이 시험은 H-II 로켓에 의해 발사된 우주왕복 무인화물선인 HOPE가 우주정거장에 도착하여 화물을 내린 다음 다시 우주정거장에서 이번에는 추진동력없이 활공하여 귀환하게 되는데 이때 착륙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장치이다. 시험기는 실물의 약 3분의 1로 축소 제작한 것으로 ①진동착륙기술의 실증 ②저속공기 연착의 특성평가 ③비행 시험기술의 평가등의 성과를 얻게 된다.

시험은 착륙시험기를 헬리콥터에 매달고 고도 약 1500m에서 초속 46m의 속도를 주어 떨어뜨린뒤 소정의 비행장에 자동으로 착륙하게 하는 것이다. 헬리콥터에서 분리한 뒤는 먼저 초속 80m까지 속도를 가속하고 그 상태로 미리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비행하면서 내려와 착륙장에 접지, 감속 정지하도록 만들었는데 이것을 실지로 실험해 보게 된다.

시험기에는 관성센서장치와 전파고도계, 마이크로파 착륙장치, 위성이용 항법장치등의 최첨단 자동항법장치가 실려 있으며 이들 여러 장치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비행제어계산기(FCC)에 의해 시험기 자체의 위치를 체크해 가며 날개 끝에 장치된 키와 동체위에 있는 속도계어기를 작동시켜 소정의 항공선에 따라 착륙하게 된다고한다.

한편 지상에서는 항법에 필요한 정보를 전파로 보내 시험기를

추적 감시하면서 자료들을 기록하게 되어있다.

러, 최신미사일 전시 마하5의 초고속자랑

러시아는 마하5이상의 초고속으로 날아가는 최신 미사일을 개발하여 모스크바에어쇼에 출품 전시했다고 항공우주관련자들이 보도하고 있다.

이 미사일은 극초음속 비행등 시험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GEL이라고 부르는 이 미사일은 공대지, 공대공, 공대함등 어떤 용도에 쓰일 예정이며 Tu-95기에 실어 공중에서 분리 발사된다고 하며 앞쪽에 작은 가나드 날개가 있고 주날개와 꼬리날개는 접히도록 만들어 폭격기의 폭탄창에 수납되도록 만들었다고한다. 그

런데 전시된 실물에는 성능이나 특징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고 다만 속도만 마하5이상이라고 발표하여 궁금하게 하고 있다.

스텔스 미사일 개발 마트라사, 계획을 발표

프랑스의 미사일제조 기업인 마트라사는 차세대형의 최첨단 스텔스 기능을 가진 순항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동사는 이 계획을 위해 이미 신형공격용 미사일의 설계·개발에 착수하여 일부는 풍동 시험중이라고 한다.

이 최신 미사일은 스텔스(전파 흡수형)성이 매우 강하며 동력은 램 제트추진을 채용하고 있는데 2010년경에는 실전에 배치할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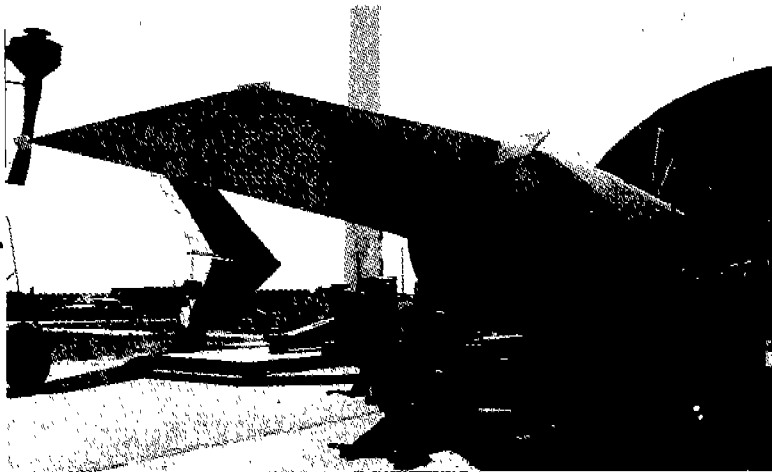
기술·재정·식량난으로 미사일개발 중지한듯 북한동향 분석, 영지보도

영국의 프라이트 인터내쇼날지가 이스라엘 정보통의 소식이 라고 하면서 최근 전하는바에 따르면 북한은 전역탄도미사일의 일종인 노동1호의 개발을 중단한 듯하다고 전했다.

북한이 노동1호의 개발을 중단한 이유로는 재정난과 식량난의 가중, 그리고 자체 기술의 한계성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사실을 이스라엘의 정보통이 전했다는데 약간 이화감이 있을지 모르나 노동형 미사일(1~2호) 개발에는 이란의 자금원조에 힘입은바가 큰 것으로 이란은 북한에 개발자금을 대는 보상으로 완성된 미사일을 가장 먼저 사들일 계약도 맺고 있다.

그런점에서 이란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 탐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정보통이 이란을 통해 얻은 북한 정보는 상당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미·영의 정보통들은 북한 내부의 움직임에 대하여 상세한 부분은 알수 없다고 평가하여 진위는 추측에 맡겨지고 있다.



극초음속미사일 GELA